

LG/GS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

이 충 도

(지수초등학교총동창회 사무총장)

<차 례>

- | | |
|---------------------|--------------------|
| I. 머리말 | IV. GS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 |
| II. LG/GS와 지수초등학교 | V. 맺음말 |
| III. LG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 | |

I. 머리말

지수초등학교가 자리 잡은 승산마을은 대대로 부자들이 많이 살았다. 만석군 2집, 천석군 이상이 14집으로 한 동네로 따져서 46,000석에서 60,000석을 한 전국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부를 유지했던 곳이며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현장으로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곳이다. 600년 전 김해허씨가 승산마을에 입향하여 터전을 잡고 살아 왔으며 300년 전에는 능성구씨가 허씨 집안과 혼맥으로 이어져 허씨와 구씨가문의 300년간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었다. GS 허씨가문과 LG 구씨가문은 300년간 사이좋게 지내 오면서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왔으며 철저한 도덕적 기품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공헌에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았다.

허씨와 구씨가문이 한마을에 살면서 학문을 숭상하고 엄격한 유교적 삶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상황에서도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신식 교육에 대한 열망을 담아 시골지역에서는 비교적 이른 지금부터 100년 전에 허씨집안의 허복(許馥)선생이 땅을 회사하여 1921년도에 지수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금성 구인회, 삼성 이병철, 효성 조흥제 창업주가 다녔으며 대한민국 산업화를 일군 기라성 같은 기업가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로 1980대 중앙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당시 100대 기업인 중 30명이 이 학교 출신이라고 했을 정도로 많은 기업가를 배출한 학교로 전국적 명성이 높아 방문객들이 늘고 있다.

남명 조식선생의 경의사상(敬義思想)에 바탕을 둔 유학자들의 근검절약과 사람을 존중하는 기풍이 서려 있는 승산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근대 기업가의 산실인 지수초등학교가 포함된 진주지역을 우리나라 최초의 경영학 모태인 한국경영학회에서 2018년 7월 10일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로 선포함에 따라 지수초등학교와 승산마을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의 성지로 매스컴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여기서는 600년 전통에 빛나는 승산마을과 지수초등학교는 서로 별개의 주체가 아니라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통해서 오늘날 LG와 GS가 탄생하는데 있어 정신적 뿌리가 되고 있으며 LG와 GS의 지역사랑과 지역공헌에 대하여 승산마을과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승산마을 천석군·만석군 현황

가호별	재산(석)	관련사항	비고
허 건 선생댁	5,000석	경남도의회 제1대 허병호 의원 생가 효성그룹 조흥제 창업주 사위 허정호씨 생가	몸채 멸실 사랑채 보전
허만선 선생댁	1,000석	포스코 광양제철 허남석 사장 생가	몸채 보전 (문화재)
허만책 선생댁	2,000석	경남도의회 제1대 허용구 의원 생가	원형 보전
허만연 선생댁	5,000석	서부경남 최초 무진회사(은행) 창설	멸실 (현지수교회)
허만기 선생댁 (후명 동식)	1,000석	효성그룹 조흥제 창업주 처남댁 펩시콜라 대표 허옥구 생가	원형 중건
허만진 선생댁 (작은 승지댁)	10,000석	전 국회사무처장 허남수 생가	멸실
허순구 선생댁	1,000석	삼성그룹 이병철 창업주 둘째 누님댁	몸채 보전
허 종 선생댁 (허씨 대종가)	1,000석	김해허씨 승산대종가	양옥 개량
허만순 선생댁 (참서댁)	2,000석	MBC 프로야구 전문해설위원 허구연 생가	몸채 보전
허인구 선생댁	1,000석	전 농수산부 허윤진 국장 생가	몸 채 , 광 채 , 대문 보전
허만박 선생댁 (판관공댁)	2,000석	초대 문교부장관 안호상 사위 허건행 생가	원형 보전 (문화재)
허 준 선생댁 (큰 승지댁)	10,000석	GS그룹 효주 허만정 창업주 생가	원형 중건
허 직 선생댁	1,000석	11대로 천석을 해온 집안(술안마을)	멸실
허만식 선생댁	2,000석	LG그룹 연암 구인회 창업주 처가	원형 보전 (문화재)
구연호 선생댁 (교리댁)	1,000석	LG그룹 연암 구인회 창업주 생가	몸채 보전
구연우 선생댁	1,000석	구기서.구익서 → 구진, 구성희 생가	멸실
계	46,000석		

※ 일제 강점기 까지 승산마을 전체 재산은 약 46,000석 이었다고
 하나 재산을 낮게 부르는 허씨와 구씨집안의 겸손함을 감안 할 때
 실제로는 60,000석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II. LG/GS와 지수초등학교

지수초등학교는 산 넘어 함안, 강 건너 의령과 경계를 이루는 지리적 여건과 일찍 신식 학교가 열림으로써 인근 학생이 학교로 몰려들었다. 이 마을에 살았던 LG그룹 구인회 회장, 의령군 정곡면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함안군 군북면 효성그룹 조홍제 창업주가 동문수학 했으며 세 분이 심었던 ‘부자소나무’가 지금도 교정을 지키고 있다.

이들 외에도 구철회 LIG그룹 창업주, 허정구 삼양통상 명예회장, 구정희 옛 금성사 사장, 구태회 LS그룹 명예회장, 허준구 LG 명예회장, 구자경 LG 그룹 명예회장, 구평희 E1 명예회장, 구두희 에스코 명예회장, 허신구 GS리테일 명예회장, 허완구 승산그룹 회장, 최종락 국제플랜트 회장, 구자신 쿠쿠전자 회장 등 무려 60여 명이 이 학교를 졸업한 기업가다.

지수초등학교 출신 기업인은 하도 많아서 이를 열거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5대 대기업 뿐만 아니라 LG그룹에서 분리된 LIG그룹, 양산에서 주방가전을 생산하는 쿠쿠홈시스, 부산에 소재한 가스시공 등 업체인 (주)국제플랜트, 인천남동공단에 소재한 부품 전문개발 회사인 (주)고려공산, 양산과 언양에 공장을 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주)대성사 등 전국과 해외에서 많은 기업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LG와 GS는 그룹 창업주인 연암 구인회 회장과 효주 허만정 회장, 효성그룹 창업주인 만우 조홍제 회장은 지수초등학교 동문이면서 모두 유학자 집안의 후손으로서 영남학파의 거두인 남명 조식선생의 사람을 중시하는 경(敬)과 의로운 뜻을 품었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의(義)를 강조한 경의(敬義)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아서인지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인재제일과 인화, 사회공헌 등에 앞장서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100년 장수기업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지수초등학교 출신 대기업의 창업주가 많은 지수지역은 기업의 사회공헌이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부지런함과 노력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슬기가 있다.

지수초등학교 출신 주요 기업인

기수별	성명	기업명	비고
제1회	구인회	럭키금성그룹 창업주(현 LG/GS그룹)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	
제3회	구철회	LIG그룹 창업주	
제5회	허정구	삼양통상 명예회장	
제7회	허학구	정화금속 창업주, LG전선 부회장	
제11회	구정회	금성사, 금성전기 사장	
	허을용	우성산업(주) 창업주	자 허인석
제12회	구태회	LS그룹 창업주	
제13회	허준구	GS그룹 창업주	
	허옥구	부산 펄시콜라 대표	자 허남철
제14회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제15회	구평희	E1명예회장, 한국무역협회장,	
제17회	구두희	에스코 명예회장	
제18회	허신구	GS리테일 명예회장	
제19회	허성구	대성사 회장	자 허부걸
제22회	허신	파로마가구 회장	
제24회	유영수	(주)고려공산 회장	
제25회	허완구	승산그룹 회장	
제26회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이병인	삼중건축설계사무소 회장	
제28회	최종락	(주)국제플랜트 회장	
	구자정	보람은행장	
제30회	구자신	쿠쿠전자 회장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구산희	(주)성우정공 회장	
제32회	허승효	알토전기 회장	
	허수창	오원물산(주) 회장	
	허창선	(주)명성교통 회장	
제34회	허승표	피플웍스 회장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 대한골프협회 회장	
제37회	조권제	지수산업 회장	
	이병구	성현테크 회장	
제38회	허승조	GS리테일 부회장	
제39회	이성범	(주)아이콘 회장	
제40회	이수환	(주)우성전장 회장	
	허장욱	경남환경개발 회장	
제41회	허두령	덕성산업 회장	
제42회	유해성	장한기술(주) 대표이사	
	구행희	(주)영신엔프라 대표이사	
제43회	허익창	E&W산업주식회사(무역업)	본사 일본
	유현구	KLB 대표이사	
	황차용	대아테크 대표이사	
제44회	이균필	(주)삼정C.T 대표이사	
제46회	허기영	SJ테크윈 회장	
49회	조행래	(주)금강DNC 대표이사	
	장동명	장안기업(주) 대표이사	
제52회	이운수	(사)한국수산업경영인협회장	

※ 80년대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당시 100대 기업인중 30명이 지수초등학교 출신이라고 했을 정도로 기업인을 많이 배출함

Ⅲ. LG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

1. 지수면 상남복지회관

LG그룹 명예회장이신 상남 구자경(上南 具滋暲) 회장은 고향사랑이 특히 남달라서 29년 前 1992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수면민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314㎡(700평) 대지에 1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매우 파격적으로 노인정(남. 여 2개), 목욕탕(남. 여) 사우나, 이·미용실, 독서실, 2층에는 대형 예식장을 설치하여 면 단위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초현대식 건물을 신축하여 진주시에 기증하였다.

당시 농촌 현실로 볼 때 면단위에서 변변한 목욕시설도 없어 목욕을 하려면 인근 반성이나 진주로 가야 할 형편이었는데 지금처럼 개인 자가용도 없던 시절이라 실제 목욕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었고 또한 대형 예식장 등도 당시의 지역민들이 절실하게 갈구하던 것들을 설계에 반영하여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지었다.

지수면 상남복지회관 건립이후 각 자치단체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시설견학을 와서 배워갔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농촌에 종합복지회관 건립의 모델이 되어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기폭제가 되었다.



<지수면 상남복지관>



<면민이 세운 상남 구자경 송덕비>

2. 지수초등학교 상남체육관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고향사랑과 실천은 남달랐다. 지수초등학교 개교 60주년이던 1981.5.9. 지수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에 추대되어 수십년간 회장직을 맡아 오면서 동문체육대회 등을 주관하면서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후학들의 학업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2000년대를 전후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학령아동수가 급감하여 지수초등학교가 폐교위기에 처해 있다는 현지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체육관 건립을 약속하고 당시 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하여 660㎡(200평) 규모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초현대식 체육관을 건립해 2000년 2월 10일 기증하였다. 이후 옛 지수초등학교 체육관이 모델이 되어 전국적으로 교육당국에서 초등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여 학생들의 학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전파되었다.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은 체육관 시공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에 몇 차례나 내려와 어린이들이 공을 차도 깨지지 않는 강화유리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후학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각별했다.



<지수초등학교 상남체육관>



<상남관 감사비석>

3. 지수초등학교 각종 교육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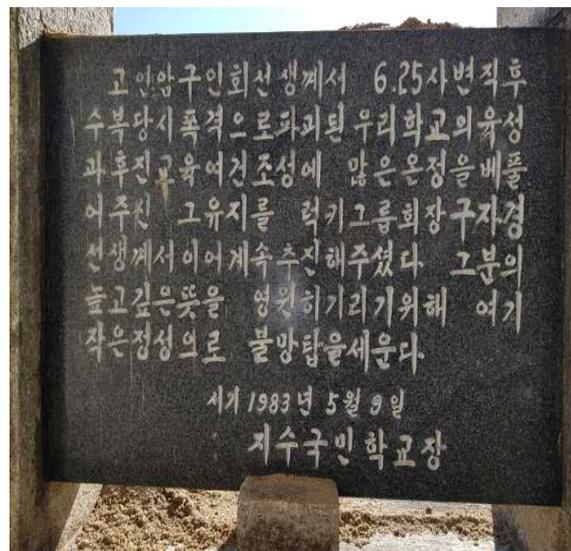
6. 25한국전쟁 당시 지수초등학교도 폭격으로 학교가 파괴됨에 따라 교실이 없어 학교 운동장에서 가마니를 깔고 수업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을 때 LG 구인회는 학교를 복구하는데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뒤 1960~70년대 지수초등학교에 금성사에서 생산된 TV, 컴퓨터 등 다양한 학습기자재를 LG 구자경 회장께서는 남다른 학교사랑과 고향사랑으로 제공하였으며 1970년 교사가 낡아 이를 신축하자 책걸상 등을 새로 사주는 등 각종 교육지원에 재산을 아끼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1982년 교무실 앞에 구인회 창업주와 구자경 회장 2대에 걸친 학교사랑에 감사의 뜻으로 “고 연암 구인회선생 불망탑”을 세워서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아울러서 LG 구자경 회장께서는 선친인 구인회 창업주께서 직접 심었다고 전해지는 학교 본관 교무 앞에 심어진 부자소나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남달라서 고향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소나무의 생육상태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구자경 전 보람은행장께서는 지수초등학교에 장학기금 8,000만원을 조성하여 학교 입학생들에 1인당 100만원, 전입생에게 30만원, 유치원 입학에 20만원 등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교육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연암 구인회 선생 불망탑>



<불망탑 뒷면>

4. 연암도서관 기증

LG 창업주 연암 구인회 회장께서는 회갑을 맞아 회갑잔치 대신에 고향에 회갑기념으로 무슨 뜻깊은 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동생들한테 물으니 당시 진주지역에 변변한 도서관이 없으니 도서관을 하나 지어서 기증하면 좋겠다고 하니까 연암 구인회 회장께서는 바로 공사 할 것을 지시하여 1968년 진주성지내(지금 계사순의단 앞마당)에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해 연암도서관을 지어 진주시에 기증하게 되었다.

그 뒤 진주성정화사업 관계로 도서관을 옮겨야 할 처지가 되어 1985년 연암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상남 구자경 이사장이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379석 규모의 지하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11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축하여 상대동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여 개관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진주시립연암도서관으로 운영중에 있다.

2018.12. 27일 LG 연암문화재단(이사장 이문호)에서 진주시민의 독서문화 장려 및 쾌적한 도서관 환경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4대와 도서 467권 등 1천만원 상당을 진주시립연암도서관에 기부하는 등 연암 구인회 회장의 열을 계승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



<연암도서관 전경>

5. 연암공과대학교 설립운영

1940년대 이후 화학과 전자, 전기, 통신 등 주요 산업분야를 개척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화의 물결을 주도해 온 LG는 고도산업 사회의 꿈을 이 땅에 앞당겨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969년에 연암문화재단을 세워 과학기술 진흥을 비롯한 각종 공익사업을 펼쳤다.

LG는 1973년에 학교법인 연암학원을 설립하고 우선 공업과 농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취지로 먼저 영농지도자 양성을 위해 1973년 충남 천안에 국내 최초로 축산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하여 연암축산전문대학, 연암축산원예대학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2016년에 연암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어서 LG는 첨단기술 사회의 주역이 될 공업인력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히 해짐에 따라 공업전문대학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연암 구인회 회장의 고향인 지수지역 세우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의 진주 가좌동에 1984년 연암공업전문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해오다 2016년 연암공과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이 대학은 LG연구소 등 첨단기술의 심도 있는 연구개발과 유능한 기술 인력양성의 산실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진흥에 당당한 한 몫을 다하고 있다.



<연암공과대학교 전경>



<기술입국 표지석>

IV. GS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

1. 각종 교육사업 전개 및 지원

1921년 설립된 지수초등학교 건립부지는 승산마을 청계공(聽溪公) 허복(許馥) 선생이 희사했다. 공은 재산이 충족하여 가난한 집의 과세를 위해 사재를 기울여서 박애사(博愛社)를 창립하고 면사무소, 지서 등의 부지를 희사하였다. 공은 일찍이 심산 김창숙(心山 金昌淑)의 광복운동에 관련되어 대구경찰서에서 감금되는 등 여러 차례 고난을 겪었다.

지신정 허준의 아들 효주 허만정은 일제강점기인 1924년 나라의 독립을 이루기 위한 길은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임을 절감하여 아버지의 도움을 바탕으로 일신재단을 만들어 현재 진주여고 설립에 앞장섰다.

그 뒤 허만정의 아들 허완구가 1988년 진주여고 생활관인 효주기념관 준공과 1991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물 3개동(교실 50개)을 신축 하는데 100억원을 쾌척했다.

아울러 1986년부터 진주여고 재학생 장학사업을 전개해 오다 2006년 이후는 장학규모를 확대해 진주여고에 재학중인 2학년과 3학년생 각 15명씩 30명에게 1년 전액 장학금(연간 4,300만원)을 매년 지급해 오고 있다.



<지수초등학교 1920년대 전경>



<진주여자고등학교 전경>

2. 면단위 유일한 효주공원

승산리 마을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는 지수면사무소 바로 옆에 전국 면단위에서는 처음으로 효주공원(曉洲公園)이 자리잡고 있다.

효주공원은 허만정(許萬正)의 호를 따서 만든 공원이다. 효주공원은 2006. 5. 26 허만정의 6남 허승효(알토전기 회장)가 어머니인 하위정의 유언에 따라 모든 면민들이 편안하게 쉬어 갈 수 있도록 공원을 만들면 좋겠다는 뜻에 따라 조성된 공원으로 당시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6,000m²(4,840평) 면적으로 조성했으며 현재 연간 관리비 5,0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효주공원 안쪽으로 들어가면 낮은 담장으로 여러 구획으로 나누어 둔 것은 가족단위로 놀러 왔을 때 서로 부담 없이 쉬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사시사철 꽃이 피고 도시생활에 지친 누구나 가족단위로 쉬어 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다.

면 단위에서 이러한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곳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승산마을의 독특한 정신을 잘 나타내는 사례다.



<효주공원 전경>



<효주공원 기바위>

3. 이웃과 함께한 시대구제

GS 허만정 창업주 부친인 지신정 허준선생이 76세가 되던 1920년 출가한 자식들과 집안 조카들을 불러놓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후손과 친척에게 나누어 주는 허씨의장(許氏義壯)을 만들어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 허씨의장은 조상, 친족, 이웃, 국가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되며 조상수호에 180마지기, 가족분재 140마지기, 친족구휼을 위한 문중의장 120마지기, 일신학당(현 진주여고) 건립에 600마지기, 마을에 궁핍한 사람을 돕는데 7천만냥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어려운 이웃과 나라를 걱정했다.

큰 승지택인 지신정 허준선생 바로 옆집에 작은 승지택인 허만진선생은 어려운 이웃들이 춘궁기에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그저 곡식을 나눠주지 않고 마을 인근 방어산에 있는 돌을 집 앞마당에 가져다 놓으면 그때야 양식을 노동의 대가로 지급했다. 양식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양식을 갖도록 해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할 목적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가져다 놓은 돌들이 쌓여 마치 1만2000봉우리인 금강산을 닮았다고 해서 '승산마을 금강산'이라 불린다.

어은공 허건(於隱公 許健)선생은 근검절약으로 많은 재산을 모아서 일제강점기에 제방시설이 없어 염창강(남강을 지수에서 부르는 명칭)이 자주 범람하여 매년 수해를 입어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유실되어 면민들이 생활이 궁핍했다. 이때 친척은 물론 이웃 주민들의 호별세(戶別稅 : 지금의 재산세 또는 주민세)를 다년간 부담하고 일정한 기금을 면에 위탁하여 부담케 하는 등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다.



<승산마을 허씨의장비>



<승산마을 금강산>



<허건선생 불망비>

4. GS칼텍스 지수공장

GS의 고향 사랑은 남달랐다. 2013. 11. 12. 진주지역에 지역을 연고로 한 재계 10위권 대기업 공장 1호를 GS칼텍스 고향인 진주시 지수면에 복합수지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6만 7천여㎡ 터에 세워진 이 공장은 전자부품과 자동차부품 등에 사용되는 복합수지를 연간 4만t을 생산 한다. 이 공장 가동으로 2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2천 5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GS칼텍스 허동수 회장은 고향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두고 고향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으며 진주시가 생긴 이후 대기업이 처음으로 건립한 복합수지 공장은 진주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기업의 고향에 대한 투자결정은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고향에서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기업에 쏟리는 이목이 부담스럽고 고향에서의 각종 요구사항들이 빗발치기 때문에 고향에 선뜻 투자한다는 것은 고향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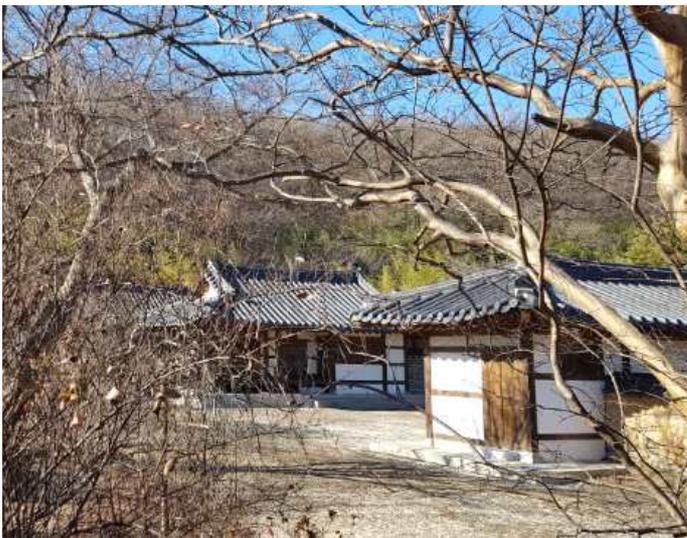
<GS칼텍스 진주복합수지공장>

5. 지역민과 화합 ·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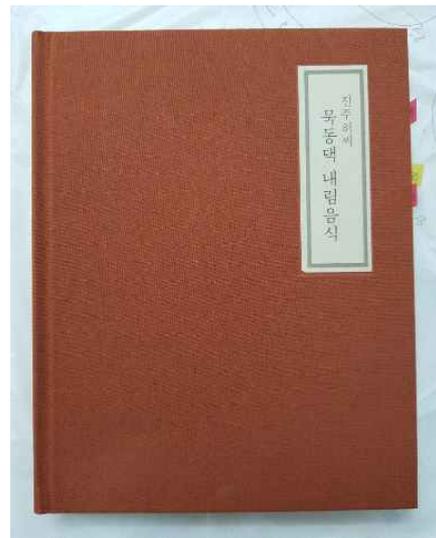
GS가에서는 매년 가을 성묘때 GS 허만정 창업주 본가에서 동네 어른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했다. 잔치에 필요한 돼지는 가장 맛있는 60kg 짜리를 특별히 주문하여 어른들에게 대접하는 등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오시는 손님을 배려하였다. 잔치를 통해서 동네에 어렵고 힘든 집은 없는지 동네에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등 고향에 살고 계시는 분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효주 허만정 창업주의 택호가 목동택인데 목동택은 인심도 넉넉하고 인품도 훌륭하여 동네에 계시는 분들중에서 목동택의 도움을 받은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리고 목동택에 찾아 오시는 손님들이 많았으며 이들에 대한 대접도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 목동택 음식은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았고 검소했지만 제때에 나는 식재료를 활용한 충분한 영양식이었다.

2013년 5월 진주지역 전통 음식 문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목동택 음식이 변화하는 세대에 따라 점점 잊혀져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효주 허만정 창업주의 다섯째 아들인 허완구 회장께서 “목동택 내림음식”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계절별 음식을 정리하여 봄 13종, 여름 15종, 가을 21종, 겨울 29종 등 총 70종의 음식조리법을 정리하여 전통음식 문화를 후세에 전하는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효주 허만정 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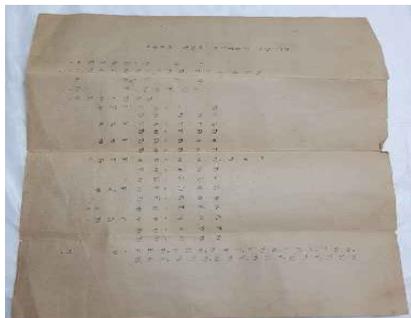
<목동택 내림음식 책자>

6. 지수IC 개설에 LG/GS 공동지원

1974년 남해고속도로(2차선 왕복) 개통으로 평면교차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였다. 그런데 1987년 교통량과 대형사고 증가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마련되어 지수에서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폐쇄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 안전을 위해 평면교차로 진입은 사고우려가 있어 IC설치가 불가피하고 IC설치도 구간 거리제한과 국도접속 등의 규정에 맞아야 하는데 군북과 진성 중간에 위치한 지수IC 설치는 많은 제약으로 폐쇄 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마, 우영, 파프리카 등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산물 출하시 속도로를 코앞에 두고 원거리 지방도를 돌려 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면사무소 회의실에 마을이장, 지도자 등 많은 면민들이 모여 “인터체인지 설치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마을마다 자발적인 모금 활동을 전개하여 1,000여만원의 활동비를 마련 서울로 가서 재경 출향인사들을 만나 IC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책을 건의했다.

당시 정·재계에 출향인사들이 막강하여 건설부, 한국도로공사, 교통부(김창갑 차관) 등에 의사타진을 하였으나 즉답을 얻지 못하고 면민 모금액 1,000만원은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으니 가져가라고 했다. 그 후 신라호텔에서 재경인사 50여명이 모여 지수IC설치에 대해 장시간 토론을 하였으나 결론이 없자 그중 한분이 ”지수IC 설치가 되고 안 되고는 두 어른(허정구 삼양통상회장, 구자경 럭키금성그룹회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하겠습니다“ 하며 박수를 치고 헤어졌는데 고속도로 확장공사시에 면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지수IC 설치공사가 진행되어 환호했다. IC설치 후에 허정구 삼양통상회장께서 고향 집안 분들에게 IC설치에 관한 이야기는 자제를 부탁하며 결코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는 일을 삼갔다. 고향사랑이 남 달랐던 두어른께서 지수IC 설치에 당시 약 40억원 이상을 부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진위원회 구성>

마을명	모금액	비고
가	100	
나	200	
다	300	
라	400	
마	500	
바	600	
사	700	
아	800	
야	900	
우	1000	
유	1100	
우	1200	
우	1300	
우	1400	
우	1500	
우	1600	
우	1700	
우	1800	
우	1900	
우	2000	
우	2100	
우	2200	
우	2300	
우	2400	
우	2500	
우	2600	
우	2700	
우	2800	
우	2900	
우	3000	
우	3100	
우	3200	
우	3300	
우	3400	
우	3500	
우	3600	
우	3700	
우	3800	
우	3900	
우	4000	
우	4100	
우	4200	
우	4300	
우	4400	
우	4500	
우	4600	
우	4700	
우	4800	
우	4900	
우	5000	
우	5100	
우	5200	
우	5300	
우	5400	
우	5500	
우	5600	
우	5700	
우	5800	
우	5900	
우	6000	
우	6100	
우	6200	
우	6300	
우	6400	
우	6500	
우	6600	
우	6700	
우	6800	
우	6900	
우	7000	
우	7100	
우	7200	
우	7300	
우	7400	
우	7500	
우	7600	
우	7700	
우	7800	
우	7900	
우	8000	
우	8100	
우	8200	
우	8300	
우	8400	
우	8500	
우	8600	
우	8700	
우	8800	
우	8900	
우	9000	
우	9100	
우	9200	
우	9300	
우	9400	
우	9500	
우	9600	
우	9700	
우	9800	
우	9900	
우	10000	

<마을별 모금액>

V. 맺음말

GS가의 관란 허국주 선생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 재산을 기울여 700명의 의병을 조직하여 진주성 1차 전투에 참전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분으로 GS가의 정신적 지주다.

구한말 GS가 효주 허만정 창업주의 선친이신 지신정 허준선생과 LG가 연암 구인회 창업주의 선친이신 구연호 선생은 구한말 나라 잃은 통환을 가슴에 간직한 유학자이면서도 상투를 자르고 신식 교육을 위해 지수초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킨 것은 개화기 변혁을 수용한 선각자였다.

승산마을에 뿌리를 둔 GS 허씨가문과 LG 구씨가문은 300년간 사이좋게 지내 오면서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왔으며 철저한 도덕적 기품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공헌에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았다. LG와 GS가 선대들이 국가와 사회를 먼저 생각하고 이웃에게 따뜻한 배려를 해온 정신을 면면히 계승하여 애국사업 등 사회공헌에 다른 기업들보다 앞장서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LG는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 라는 선대회장의 뜻을 반영해 2015년 LG 의인상을 제정하고, 의로운 시민들을 찾아내 포상하고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 널리 알리는 일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GS도 자회사·계열사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각 회사의 사회공헌 슬로건 아래 다양한 활동을 펼쳐 기업의 성과를 사회와 함께 나누어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선대의 고귀한 정신을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며 다른 기업들의 모범이 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자부심이 크다.